광용 스님, 비구니회장 당선…"참여 · 도약 · 미래"로

9월 18일, 462명 동참 총회서 만장일치 인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광용 스님 "화합 공약 실천" 약속
6000 대중스님에 관심 · 참여 당부
본각 스님 "축제 같던 선거…기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광용 스님이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자였던 광용 스님은 9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제13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제17차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462명이 선거인명부에 점명하며 선거에 동참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비구니회장선거다. 선거 당일 전국비구니회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왔다.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회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광용 스님은 자격심사 통과 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으며 회칙에 따라 200명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인준 받아 이날 최종 회장으로 당선됐다. 인준방법은 박수로 결의했다. 참석 대중스님들의 뜨거운 박수로 광용 스님이 만장일치로 회장에 인준되자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여법하게 마무리됐다.

광용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먼저 지난 4년 동안 비구니회를 이끈 12대 회장 본각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업적과 유지를 잘 받들어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전국비구니회 공덕 탑 위에 제13대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가는 비구니회' 라는 돌을 쌓아올린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회장소임을 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용 스님

그러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중앙본회와 19개의 지회가 화합할 승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소임자들이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용 스님은 대중스님에게 마음을 모아줄 것을 역설하며 "6000 대중스님의 관심과 참여, 때로는 경책이 있어야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는 성원보고와 의장 스님의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의장스님 인사말, 경과보고, 총회 안건인 13대 회장 선출의 건 상정, 공약발표, 인준방법 결의, 인준, 당선증 교부, 당선소감, 축하 및 감사인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에는 총 46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선거인 명부에 점명했으며, 490여 명의 스님이 총회에 동참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제정 이후 단독후보 선거가 처음 시행된 만큼 진행과정에서 회칙과 선거법간의 부조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했다. 이에 대해 선출위원회 위원장 정운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회칙과 선거법 간의 부조화로 선출 과정에서 다소 미흡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극복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 여법하게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거법 미비한 부분은 책임지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용 스님은 안건 상정 후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12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열정 다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4년간 지켜보면서 인생 마지막 회향에 공적인 소임을 맡은 것도 보람되겠다는 생각에 회장에 출마했다"면서 "12대에 부회장 소임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13대 전국비구니회를 참여와 도약, 미래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간 회관에 거주하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화합 승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비구니 승가 역량강화와 인재육성 진력 △안정된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위상과 정체성 확립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 승가 구현 등을 약속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 비구니스님들의 공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비구니회관이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열린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른스님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소임자 스님들과 성실히 이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각 스님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축제처럼 이뤄져 기쁘다"면서 "4년 전 회장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회만은 서로 존중하고, 차별 말고, 무시하지 말자는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장스님께서 불자들과 함께 비구니회관을 잘 가꿔가길 기대한다"면서 "무거운 짐을 진 스님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의 건강검진에 힘써주는 동국대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명숙 동국대일산병원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비구니스님들의 마음이 모인 기금이 의료 포교도량의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교직원 모두가 약사보살의 화연으로 자비의 인술로써 부처님 법 전하는 밝은 연등이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임기는 11월 13일부터 4년간이다.

조계종, 모로코에 '구호단' 급파

10만불 상당 구호 물품 지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를 위해 '조계종합동구호단' 을 현지 파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필두로 구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조계종합동구호단(구호단)' 을 조직, 선발대와 본대를 나눠 두 차례 현지 파견한다.

급박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사회복지재단과 굿월드자선은행 실무자가 9월 18일 현지에 파견됐다. 선발대는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현지파트너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준비 과정이 끝나는 10월 초중순에는 본대가 출국해 10만불 상당의 구호물품을 수송,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모로코에 지원되는 물품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모연한 긴급구호기금으로 운용된다.

모로코는 9월 8일 서남부 아틀라스 산맥 부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주택이 대거 무너졌다. 지진으로 3000명 가까이 숨지고 5000명 넘게 다쳤다. 김내영 기자

무진장 스님 10주기…"가르침 따라 정진"

9월 19일, 조계사서 다례재 봉행
"실천 대승보살 될 것" 다짐도

한평생 전법활동에 매진하며 '한국의 부루나 존자' 로 불렸던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 10주기를 맞아 생전 스님의 가르침과 뜻을 되새기는 추모법석이 마련됐다.

무진장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은 9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0주기 다례재' 를 봉행했다.

무진장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7무(無) 스님' 으로도 불렸다. 한겨울에도 모자나 목도리, 장갑, 솜옷을 걸치지 않았고 자동차, 사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평생 조계사 대중으로 방 한 칸에서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오로지 미래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대중포교에 진력, 법문을 청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설법이 능해 '부루나 존자' 로도 칭송받았다.

"지금 파고다공원에서 설법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로거리에서 법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진장 스님, 어서 오십시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무진장 스님을 그리워하며 지난 시절을 회고하자, 대중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무진장 스님 원적 10주기를 맞아 9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다례재가 봉행됐다.

법산 스님도 무진장 스님과의 인연을 곱씹으며 "무진장 스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듯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무진장 스님의 원력을 이어 힘차게 정진할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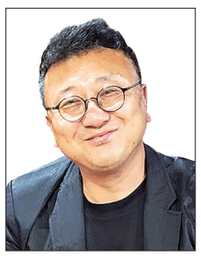
다례재가 봉행된 조계사는 무진장 스님이 46년간 머무르며 전법포교에 전념했던 도량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 대승법회장은 불자들을 대표한 추모사에서 "큰스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정법을 공부하고 수행정진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길 바라셨다"면서 "그 가르침 잊지 않고 부족하지만 정진하고 실천하는 대승보살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종 제2 · 4대 포교원장을 역임한 무진장 스님은 2007년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뒤 대종사를 품수했으며 2010년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평생 대중교화와 교육에 매진한 공로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비롯해 제3회 대원상 대상 등을 받았다. 1987년에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종로 탑골공원을 찾아 매일 노숙자 등을 위해 법문한 일화는 스님의 대중교화의 원력을 한눈에 보여준다. 40여 년간 조계사에 주석했지만 주지 소임을 맡지 않은 스님은 2013년 9월 9일 세납 82세로 원적에 들었다. 임은호 기자

故김주일 前편집국장, 불교언론인상 선정

조계종, 2023 언론문화상 발표
26년 교계 언론 발전 공로 인정



지난 5월 4일 별세한 본지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사진〉이 제31회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9월 22일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 의 올해 수상자로는 본지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이 선정됐다.

故김주일 前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줄곧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고,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제31회 언론문화상 대상은 BTN '특집다큐 스님의 눈물 2부작' 이 선정됐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KBS청주 '특별기획 직지 시절인연' ,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BBS제주불교방송 '제주 불교 4 · 3기억의 흔적을 되짚다' ,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사 '이제는 禪명상 힐링의 시대' ,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비브로스팀 '걸어서 템플속으로' 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 우수상 3편과 특별상 2편도 선정됐다.

운영위원장 혜공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 출품된 작품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포교의 수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인상을 수상한 故김주일 현대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은 생전에 불교언론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되는 '2023불교문화대전' 폐막식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2월 7일 출발~12일 도착 (5박6일)

동참금 | 259만원

일 정 | ▶1일 : 미얀마항공편으로 인천–양곤
▶2일 : 양곤–바간
▶3일 : 바간–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
▶4일 : 만달레이–헤호
▶5일 : 헤호–양곤
▶6일: 양곤–인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12월 6일 출발~10일 도착 (3박5일간)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년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불탑입니다.
1460개에 달하는 벽면에는 부처님의 전생담과 탄생등 생애에 관한 장면들이
그리고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이 조성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화엄법계를구현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탑입니다.

동참금 | 169만원

일 정 | ▶1일 :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자카르타
▶2일 : 자카르타–족자카르타–프람바난사원,세우사원,플라오산 불교사원등 순례
▶3일 : 보로부두르 대탑, 멘듯사원등 순례
▶4일 : 머라피 화산 지프로 관광 후 족자카르타 출발, 자카르타 도착(경유)
▶5일 : 인천 공항 도착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
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1월 02일 출발~11월 12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
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
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